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부진

3~8% 저렴 불구 홍보부족 등으로 판매 실적 감소세... 금감원, 안내·가입절차 11월부터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고 보고 안내 절차를 약관 외에 상품설명서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안내 및 가입절차를 11월부터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3급 이상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5년 이상 중고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평균 3(온라인채널)~8%(대

면채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과 과도한 제출 서류로 판매 실적이 2013년 6만5923건에서 지난해 5만4788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대부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 외에는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에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보험설계사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모집단계에서

안내화면이 팝업창으로 뜨는 식이다.

이와 함께 상품설명서 및 만기안내장에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품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 대상 상품은 가입절차를 간소화한다.

장애인은 외부 이동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데도 가입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해서도 가입대상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구청 등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갱신할 때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해 번거로움이 컸다.

금감원 추산 결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은 약 3만 8000명이지만 실제 해당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53명에 그쳤다.

11월부터는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된다. 또 기존 보험사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장애 증명서류는 2년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우대 상품은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할인특약에 가입해도 중복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며 "3급 이상 중증장애자, 연소득 2000만원(배우자 합산) 이하 고령자는 부양가족 기준 등 가입요건이 완화돼 가입이 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진해운 협력업체·중소화주 금융지원

금융당국, 원금상환 유예·만기 연장·특례보증 등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자금난 관련,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열린 해운업관련 합동대책 T/F 1차 회의의 논의를 기초로 이 같은 지원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한진해운과 상거래채무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총 457개이며 채무액은 약 64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이며, 평균 상거래채권액은 약 70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특별대응반 및 현장반을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요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향후 벌어질 수 있는 협력업체 및 화주들의 자금 문제에 대비해 경

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은행의 경우에도 금감원이 협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협력업체와 중소화주 등을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보증비율(85%~90%) 확대 및 수수료 0.2% 차감, 보증공급을 최대 100억원까지 늘리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해도 보증을 제공하고, 최대 3억원의 추가 한도를 부여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융위는 한진해운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 지원에 소요될 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추가경정안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8000억원

쉐보레 준중형 크루즈, 'My 1st Identity' TV광고 시작

2535 젊은 고객층에 어필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준중형차 크루즈(Cruze)의 슬로건을 'My 1st Identity'로 새롭게 정하고, TV 광고를 시작으로 이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쉐보레는 이달부터 크루즈의 새로운 TV 광고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계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크루즈만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총 2편의 시리즈로 구성된 이번 광고에서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신혜선과 윤근상씨가 광고 모델로 나서 제품의 특징을 극대화하는 자연스러운 연기와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선보였으며, 방영을 시작하자마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광고는 유튜브,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차급을 뛰어넘는 주행능력과 뛰어난 내외관 스타일은 물론 우수한 안전성까지 갖춘 크루즈야말로 첫 차를 구매하게 되는 2535 젊은 고객층에게 최적의 제품임을 다시 한 번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엠 마케팅본부 이일섭 전무는 "쉐보레 크루즈의 주 고객층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좋아하는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가 준중형차 크루즈의 슬로건을 'My 1st Identity'로 새롭게 정하고, TV 광고를 시작으로 이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젊은 층인 만큼, 새 슬로건을 'My 1st Identity'로 정하고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며 "이달부터 새롭게 시작한 광고 캠페인, 고객 경험 이벤트 등을 통해 크루즈의 매력을 한층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쉐보레는 9월 한달간 크루즈 구입상당 고객 혹은 시승신청 고객 대상으로 푸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쉐보레 홈페이지(<http://www.chevrolet.co.kr/campaign/2016-cruze-identity/index.gm>)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CGV 영화예매권, 커피음료권 등 다양한 경품을 130여명의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조선=문정곤 기자

"신용등급 낮을수록 신용카드 잔액 커져"

"현금서비스 이용액, 소득 하위 20% 연평균 6.2% 증가"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신용카드 잔액이 커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용카드 잔액이란 연체금액과 월말을 기준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금액의 총합을 뜻한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신용카드 이용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9년에서 올해까지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신용조회회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용등급별 신용카드 잔액은 7등급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졌다.

2009년과 2012~2015년에는 6등급의 신용카드 잔액 규모가 가장 컸고, 2010년과 올해는 7등급의 잔액 규모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연구위원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이용금액 대비 잔액 비율이 점점 커진다"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잔액에 포함되는 연체금액이 많기 때문이거나, 회전결제(리볼빙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잔액이 누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기준으로 이용금액 대비 잔액 비율을 보면, 1등급은 1.03배인데 반해 6등급 1.69배, 7등급 1.80배, 8등급 1.89배, 9등급 2.38배, 10등급 14.90배로 신용등급에 따라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그는 또 "신용카드 활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

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소득·저신용층의 현금서비스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2009년과 올해 사이 줄었지만, 소득 수준별로는 하위 20%(1분위)에서 연평균 6.2% 증가했다.

2009~2015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6등급이 가장 많았고 올해는 7등급이 128만원으로 6등급을 앞질렀다.

노 연구위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학자금 등의 급전 수요를 해소할 마땅한 신용대출 상품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단기대출인 현금서비스가 상환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뉴시스

신용현, 선택약정할인 30% 추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당 신용현 의원은 이같은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이용자에게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